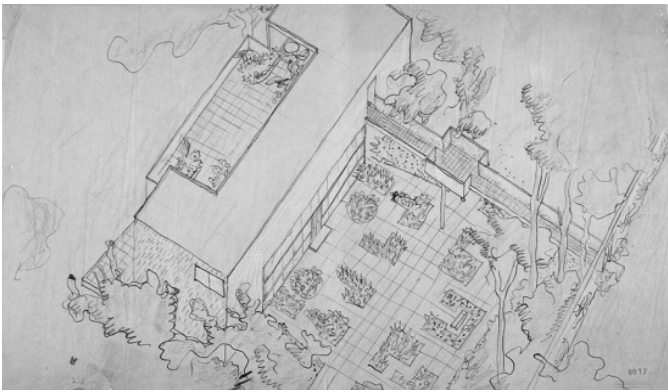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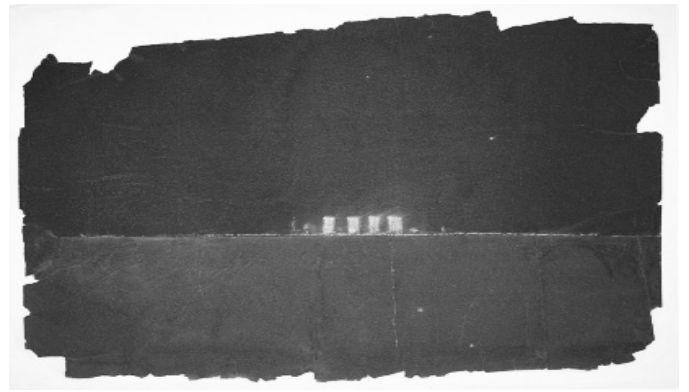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열린 르 꼬르뷔지에의 첫번째 전시

The First Exhibition of Le Corbusier at Museum of Modern Art



Music Pavilion for Villa Church, 1927-1938.
Courtesy Museum of Modern Art



Plan for Buenos Aires, 1929.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최근 Le Corbusier의 첫 회고전이 MoMA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의 큐레이터 Jean Louis Cohen과 Barry Bergdoll가 선택한 이 전시 타이틀 An Atlas of Modern Landscape는 관객들에게 표제로 쓰인 landscape에 따라 전시 품들을 보도록 유도 하고 있다. 이 전시는 훌륭하고, 그것은 매우 교훈적인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landscape와 그의 주요 건축 작품들을 회고적 통시 관점에서 동시에 보여주기 위하여 지어졌거나 혹은 지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드로잉이나 회화들 등 모두를 제공하여 설명하려 하였으나 제한된 공간인 전시장 안에서 모두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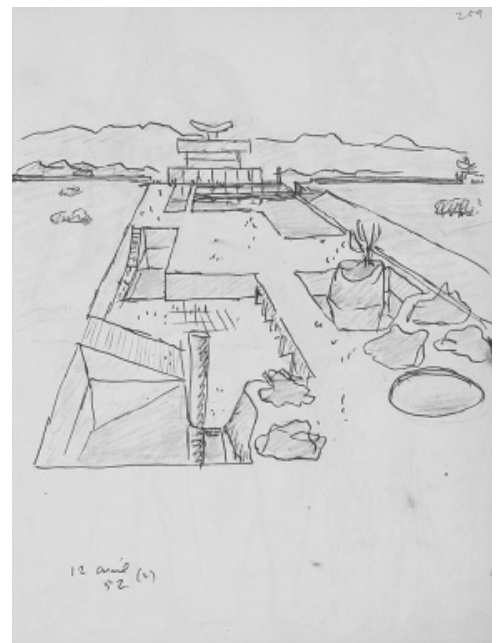
하지만 전시 안내책자는 두 관점을 그의 작품의 훌륭함과 건축계에 끼친 영향력을 적절히 잘 설명하며 전시 의도를 알려 주고 있다.

도면 원본들, 수채화, 페인팅, 모형, 그리고 영화 등을 활용하여 Le Corbusier가 건축사이자 화가로서 고향인 스위스에서 설계한 초기작품부터 그가 자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Le Corbusier를 20세기의 근대건축과 도시설계의 모든 실수에 대한 주범 혹은 희생양이라며 비난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관람객들은 친숙한 작품들의 주로 덜 알려진 이미지들을 보며 복합적인 표현수단을 통한 그의 사고의 진화를 느낄 수 있다. 전시는 첫 스승인 Chales L'Eplattenier의 페인팅과 Le Corbusier 본인의 작품인 낭만적인 Jura School 조경으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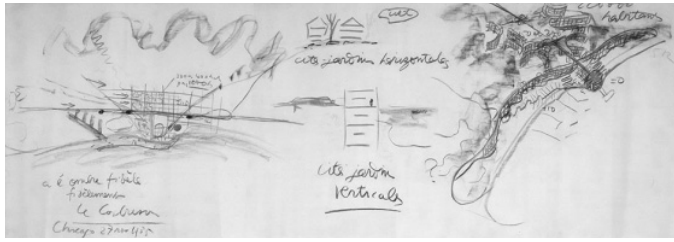
전시는 계속해서 파리의 큰덩어리를 지우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도시형 오피스타워, 그리고 공원과 고속도로로 둘러싸인

중, 저층 주거단지를 가진 중세 도시 구조로 대체하는 논쟁적인 제안들을 보여 준다. 조경으로 시작하는 작품은 1929년 그가 남아메리카 해안 비행기 여행의 결과물로 그려낸 지형과 도시들의 스케치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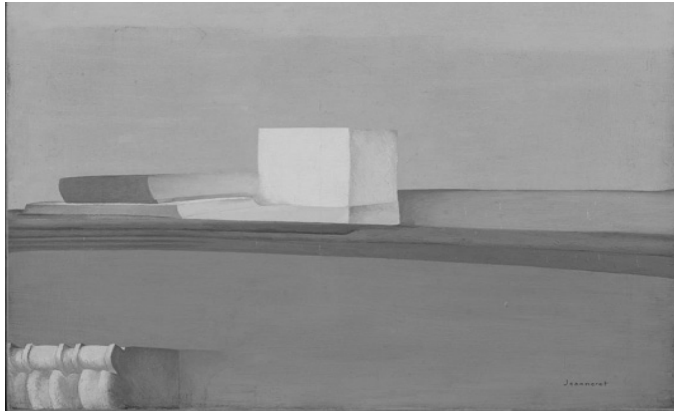


Governor's Palace, Chandigarh, 1951-1965.

1929년 10월 22일, Le Corbusier는 'Aeroposta Argentina'의 첫비행을 하였다. Jean Marmoz와 Antonie de Saint-Exupery가 조종한 비행기는 Buenos Aires에서 출발하여 Asuncion del Paraguay까지 날아갔다. 그것은 이전의 파리도시 계획들로 물의를 일으켰던 42세의 건축사에겐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비록 그 지역 문맥에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평평한 데 카르트적 도시계획 Ville Contemporain de Trois Millions D'habitants, Ville Radieuse, Cite Linear Industrial는 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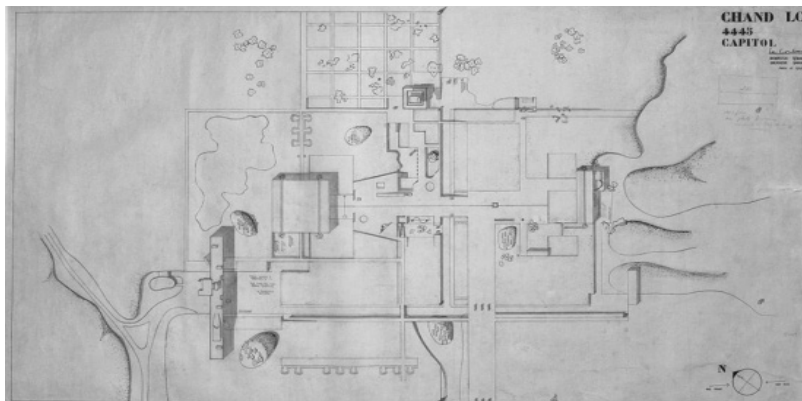
Plan for Algiers and Barcelona, 1935.



The Fireplace, 1918.

강, 바다가 주축으로 구축되어 사이트의 공중에서 바라본 지질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연에 녹아 들어 있었다. 그가 이 비행기 여행에서 만들어낸 Montevideo, Buenos Aires, Sao Paulo 그리고 Rio 지역에 제안한 놀라운 도시계획들은 Buenos Aires의 Plata 강의 독특한 수경, Montevideo의 특 튀어나온 반도의 용기, Sao Paulo의 많은 언덕들과 두개의 강, 그리고 연속되는 만과 바위로 만들어진 비경을 지닌 Rio de Janeiro의 풍광을 반영하고 있다.

to the crisis!는 위의 깨달음이 그의 세계관이 되었음이 자명해졌음을 보여준다. 1929년 가을은 그의 건축인생에서 있어 전환점이 되었는데, 초기 각기둥으로 된 집과 논쟁적인 도시제안들에서 벗어나 더욱 현실적 초점으로 하지만 조경이 아니라 대지에 대한 것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이런 지형적인 관점은 Le Corbusier에게는 특별히 인식되지 않았던 식생이 아니라 이 도시들의 극적인 지형의 상태에 관련이 있었다. 동승자 Josephine



Capitol Complex, Chandigarh, 1951-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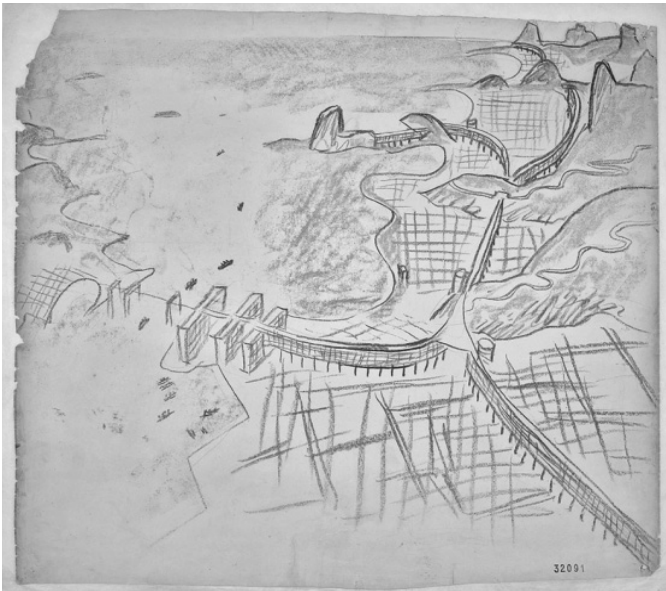
Baker와 함께한 Rio, Buenos Aires까지의 그의 항해는 ‘건축의 미래’를 위한 탐험이었으며, 그 결과물은 설계의뢰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강연들을 가졌고, 그 기록들을 한권의 책으로써 모으게 되었다. 그래서 그 시기 1930년에 파리에서 출판한 <Precisions on the Present State of Architecture and City Planning>는 그의 이론과 건축, 도시계획 방식에 대한 그의 특정한 관점을 다룬 그의 최고의 책이었다고 평가 받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독특한 기후, 식생, 지형은 Le Corbusier의 복합적인 개성의 감각적인 측면을 이끌어내었다. Rio, Montevideo, 그리고 San paulo를 위한 건축으로써 조경으로 통합된 도시 하부구조의 그의 대담한 제안들은 감각적이고 기념적이었다. 이 제안된 ‘earthscrapers’ 중 아무것도 미국에서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후, 1936년 브라질 여행에서 Lucio Costa에게 자문위원으로써 Rio 대학과 교육부 본부를 위해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으며, 이후 프로젝트인 earthscaper 도시건축, the Plan Obus for Algiers 역시도 실현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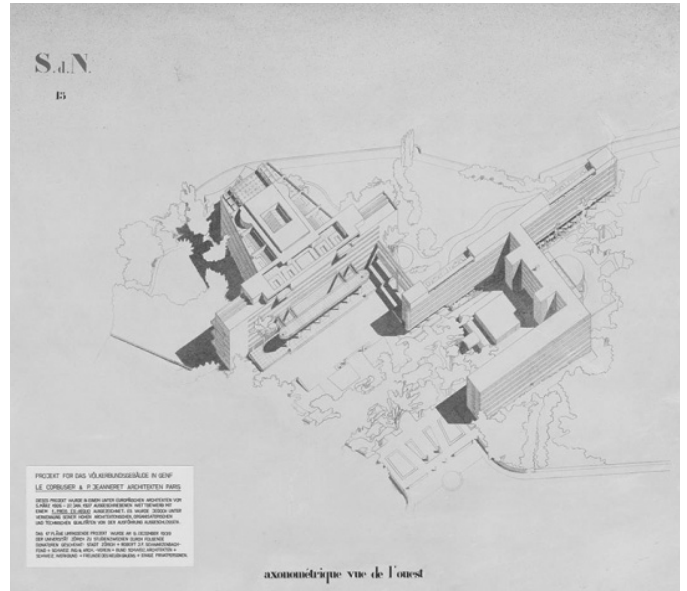
Soviet Union, Latin America, Istanbul 혹은 Algier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작업을 찾는 끈질긴 여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맥락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유명한 건축물을 제안하는 동시대의 유명 건축사들의 모델로 여겨질 수는 없었다. 그의 스케치 북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Le Corbusier는 끊임없이 그의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고, 그의 많은 여행 중에 보았던 일반주택 양식 구조부터 농업과 천체현상까지 거의 모든 것에 주목하였다. 그



Parthenon, Athens, 1911.



Urban Plan for Rio de Janeiro, 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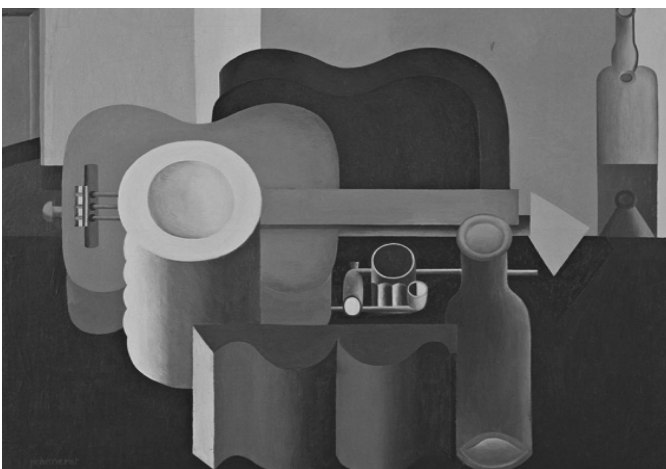


Palace of the League of Nations, 1921.

의 건축프로젝트 중의 각각 하나는 그가 작업해온 맥락의 물리적이고 문화적 가치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변화되어졌다. 결코 건축을 통한 통상적인 것이거나 모범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Le Corbusier는 매일 아침 그림을 그렸고, 이 과정은 그의 건축을 발전시켰으나, 그 그림의 대부분은 그가 완공해 낸 건축작품들의 훌륭함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최고의 건물은 회화적이고 조각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 오리지널 모델들과 드로잉에서 만큼이나 그림들속에서 색과 재료에 대한 감수성이 나타나고 있다. Amédée Ozenfant와의 협업과 ‘순수주의’의 지지 이전에, 그는 그림의 주제로써 건축과 조경의 관계를 탐구해왔다.

전시에서 가장 놀라운 유화는 The Fireplace, 1918이다. 이 그림에서, 색이 층으로 분리된 배경에서 투시도로 하얀 입방체 볼륨이 나타난다. 순수주의 화가 혹은 건축사로서도, Charles de Beistegui apartment in Paris(1929-1931)로 절정에 도달한 회화작품에서 초현실주의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Still Life, 1920.

만들기에 이상적인 나라들이어서 Le Corbusier는 매우 희망적이었던 반면, 그 대륙에는 단지 두 개의 작품만을 실현하였다. 아르헨티나 La Plata의 지역 건축사인 Amancio Williams와 협업한 Villa Curuchet와 그의 동료이자 이전 고용인인 Jose Luis Sert와 협업한 Carpenter Center였다. Jose Luis Sert는 Massachusetts, Cambridge의 후원자였다.

가장 눈에 띄는 몇 작품과 전시에서 좀처럼 보이지 않던 작품들은 긴 족자에 특정 주제를 설명하는 그의 강연이 쓰여있다. 오리지널 모델 옆의 소비에트공의 콜롬비아 대학의 족자나 1935년 시카고에서의 강연 기간동안 만든 수직 정원도시를 포함한 알제와 바르셀로나의 기다란 스케치같은 그림들은 그의 아이디어들에 대한 감정적이고 자발적인 강렬함과 그만의 세계관으로 관객을 설득시키기 위한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1961년 4월 28일 콜롬비아 대학의 관객들에게 ‘나는 말하는 것보다 그림을 선호한다. 그림은 거짓말 할 곳이 적다.’ 아이디어들에 대한 여기 기호들과 글자들은 무료이며, 어떻게 그 스스로 자신의 건축에서 살게하였는지에 대해 부차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해준다. Le Corbusier는 대학교에 다닌적이 없으며, 건축을 가르쳐 본 적도 없다. 이 족자들은 대중적인 건축사로서 Le Corbusier에 대해 교훈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문서들이다.

정확하게, 그가 쓴 브라질에 관한 이야기는 ‘2개월 반 동안의 제약과 억압 이후에 축제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론지으며 ‘신사숙녀 여러분, 올해 초원 지대인 모스크바, 뎀퍼,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림지대 그리고 리오로를 천천히 귀기울이며 돌아다니는 일은 저에게 있어서 건축의 토지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 전시를 보면서 주의해야 만한다.: 이 전시는 Le Corbusier와 ‘근대건축’에서 그의 복합적인 역할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꿀것이다.’ 圖